

# 미리 보는 KS... '1위 수성' KIA, '추격자' LG 만난다

##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타격 위기를 맞은 KIA가 원정 6연전에 나선다. '1위 수성'이 목표가 됐다.

KIA 타이거즈가 13일부터 수도권 6연전을 갖는다.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갖는 KIA는 이후 잠실로 가서 LG 트윈스를 상대한다. 시선은 주말 3연전에 쏠린다. 1위 KIA와 2위 LG, 두 팀이 몇 경기 차에서 만나게 되느냐가 관심사다.

지난주 두 팀의 표정이 엇갈렸다. 홈에서 KT 위즈,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한 KIA는 비로 한 경기를 치르지 못하면서 2승 3패의 전적을 남겼다.

6일 김도현의 5이닝 무실점 호투로 2-0 승리를 거뒀지만, 실책으로 KIA의 결음이 꼬였다.

제임스 네일이 선발로 나선 7일 3개의 실책이 쏟아지면서 초반 싸움을 밀렸고, 2-13의 일방적인 패배를 당했다.

8일에도 아쉬운 실책이 나왔다. 이날 두 팀은 11회까지 '0'의 싸움을 이어갔지만 12회초 나온 홍중표의 실책이 반미가 돼 KIA가 0-1 패배 기록했다.

9일에는 반대로 상대의 수비로 KIA가 웃었다. 삼성을 상대한 KIA는 9회말 행운의 끝내기 안타로 9-8 승리를 거두고 웃었다. 상대 2루수, 유격수, 중견수 사이에 공이 떨어지면서 KIA가 기분 좋은 승리를 만들었다.

10일 비가 내리면서 김기훈의 선발 등판이 무산

## 4경기 차...주말 총력전 예고

## 타격 부진·실책 겹치며 하락세

## 김도영 '30-30' 달성도 관심

된 뒤, 11일에는 에릭 라우어가 마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메이저리그 36승에 빛나는 라우어의 KBO리그 데뷔전 시작은 좋았다.

1회를 삼자범퇴로 열었지만 2회초 선두타자 강민호와 9구 승부 끝에 홈런을 허용했다. 박병호에게도 한 방을 내주면서 라우어의 첫 무대는 3.1이닝 4실점으로 끝났다. 또 이 경기에서도 3개의 실책이 기록되는 등 KIA의 불안한 수비는 여전했다.

KIA는 수비 불안과 타격 하락세로 2승 3패를 기록하면서 뒷걸음질 쳤지만, LG는 11일 9회말 2사에서 나온 박동원의 끝내기 안타로 4연승 질주를 하면서 +2를 기록했다. 1위 KIA와는 4경기 차가 됐다.

LG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마운드에는 파란불, 타석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호된 신고식은 치렀지만 KIA는 라우어로 선발진 무게감을 더했다. 김도현은 선발로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뒤 불펜으로도 2.2이닝을 처리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비로 13877 만의 선발 등판이 취소됐지만 김기훈도 미국 연수를 통해 구위와 스피드 답을 찾아왔

다. 마무리 정해영도 부상에서 복귀해 3경기에서 2.2이닝을 무실점으로 정리했다.

타선의 흐름은 아쉽다. '원조 해결사' 최형우가 내복사근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신해결사' 김도영의 방망이는 잠잠하다.

30홈런에 단 하나만을 남겨뒀던 김도영은 지난 주 5경기에서 담장을 넘기지 못하면서 '최연소 30-30' 기록을 미뤘다. 김도영의 주간 타율은 15타수 3안타, 0.200에 그쳤다. 대기록을 앞두고 상대가 어렵게 승부를 하면서 7개의 볼넷에 만족해야 했다.

타격 페이스 하락세 속 상대도 어렵게 피해야 하는 김도영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마음이 급해진 김도영은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기도 하는 등 험난한 한 주를 보냈다.

강한 2번으로 역할을 했던 최원준도 지난주 3안타를 수확하는 데 그치면서 지난주 주간 타율 부문 10위 안에 KIA 선수의 이름이 빠져있다.

득점을 하면서 경조사 휴가로 1경기 빠졌던 박찬호가 4경기에서 0.412 타율로 전체 13위에 올랐지만 팀 타율은 0.265에 그쳤다.

수비 고민도 여전하다. KIA는 지난주에도 5경기에서 9개의 실책을 추가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일이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른다. 네일은 13일 키움 김윤하와 선발 맞대결을 갖는다.

네일만 나오면 흔들리는 수비가 이번에는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승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네일

## '광양여고 주장' 조혜영, 여자 U-20 월드컵 대표팀 합류

### 대한축구협회 최종 명단 발표

광양여고 조혜영(사진)이 오는 9월 콜롬비아에서 치러지는 여자 U-20 월드컵에 출전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2024 FIFA 여자 U-20 월드컵에 출전할 대표팀 21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 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광양여고 주장' 조혜영, '대표팀 주장' 전유경, 지난해 여자 월드컵에 참가한 배예빈을 비롯해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치러진 아시아축구연맹 U-20 여자 아시안컵 멤버 13명 등이 포함됐다.

이어 아시안컵 이후 실시한 국내 소집훈련과 미국 원정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8명이 새롭게 합류 했다.

대표팀은 12일 구미에 소집돼 17일까지 훈련 후 19일 콜롬비아로 출국한다.



조별리그 D조에 속한 한국은 9월 2일 오전 8시(이하 한국 시간) 나이지리아전을 시작으로 5일 오전 10시 베네수엘라, 8일 오전 5시 독일을 상대로 맞붙는다.

2년마다 열리는 여자 U-20 월드컵은 지난 대회까지 16개팀으로 본선을 치러왔다.

이번 대회부터는 24개팀(6개조)이 참가해 조별리그 각 조 1, 2위팀과 3위팀 중 성적이 좋은 4개 팀까지 16강전에 진출한다.

올해 35세로 역대 FIFA 대회에 참가한 한국 감독 중 최연소인 박윤정 여자 U-20 대표팀 감독은 "그동안 대회와 훈련을 통해 기술적인 능력과 태도를 신중히 평가해 선발했다"며 "이번 U-20 월드컵

이 선수들 모두에게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3월 U-20 아시안컵에서 4위를 차지해 통산 7번째 U-20 월드컵행 티켓을 따냈다.

◇2024 FIFA 여자 U-20 월드컵 최종 명단 (21명)

▲GK : 우서빈(위덕대), 정다희(충남인터넷고), 조어진(울산과학대) ▲DF : 김규연-양다민(이상 울산과학대), 엄민경-정유진(이상 위덕대) 장서운(예일대), 최은형(고려대) 남승은(오산정보고) ▲MF : 강은영-김지현(이상 대덕대), 김신지-배예빈(이상 위덕대), 최환빈-홍재민(이상 고려대)

▲FW : 조혜영(광양여고), 박수정-천세화(이상 울산과학대), 전유경(위덕대), 정다빈(고려대)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제2의 '슛돌이' 이강인 찾습니다"

### 대한축구협회 '골든 일레븐' 진행...20일까지 접수

대한축구협회가 유망주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 '골든 일레븐: 리리가 원정대'에 도전할 어린이를 찾는다.

'골든 일레븐'은 축구 기술 습득에 가장 좋은 시기를 가리키는 '골든에이지'와 국가대표팀 베스트11(일레븐)을 합친 단어로 지난 2020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사진> 올해 선발된 11명은 스페인 캠프와 현지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참가하게 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의 남녀 어린이는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3일부터 20일까지 tvN SPORTS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합안, 대전, 수원에서 권역별 예선이 진행되고 예심을 통과한 선수를 대상으로 11명을 선발하는 마지막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11명은 스페인 명문 구단의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체험하고,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마드리드컵(2024 Madrid Football Cup U-12)에도 출전한다. 대회에는 레알 마드리드, FC바르셀



로나, 셀시의 유소년 클럽 선수들이 참가한다. 한편 '골든 일레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나도 슛돌이다' 사업의 일환이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 이노션과 tvN SPORTS가 방송 제작과 운영을 담당하며 12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이경훈·김성현, PGA 플레이오프 진출 좌절

### 원팀 챔피언십...라이 우승

### 이경훈 41위·김성현 66위

이경훈과 김성현이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이경훈은 1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셰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투어 정규시즌 마지막 대회 원팀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1타를 잃고 공동 41위(6언더파 274타)에 그쳤다.

이경훈은 페덱스컵 랭킹을 99위에서 1계단도 끌어 올리지 못해 70위까지만 출전하는 플레이오프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김성현은 이날 8오버파 78타를 치는 부진 끝에 66위(6오버파 286타)까지 밀리는 바람에 페덱스컵 랭킹이 110위에서 111위로 더 하락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려는 복안으로 이 대회에 출전한 임성재는 공동 41위(6언더파 274타)로 대회를 마쳤다.

이날 2오버파 72타를 친 임성재의 페덱스컵 랭킹은 9위에서 변동이 없다. 앞서 컷 탈락한 김시우는 페덱스컵 랭킹이 36위에서 38위로 2계단 떨어졌다.

양손에 모두 검은색 장갑을 끼고 경기하는 에런 라이(잉글랜드)는 PGA투어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DP월드투어에서 2차례 우승한 라이는 PGA투어에서는 그동안 준우승 한번과 3위 한번 등 5위 이내로 5번 진입했지만, 우승이 없었다.

약천후 탓에 경기 진행이 차질을 빚어 이날 36홀 경기를 치른 라이는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4타를 몰아쳐 최종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맥스 그레이서먼(미국)을 2타차로 따돌렸다.

라이는 페덱스컵 랭킹도 53위에서 25위로 끌어 올렸다.

페덱스컵 랭킹 70위 밖이었다가 이번 대회에서 70위 이내로 진입해 극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선수는 빅토르 페레스(프랑스)가 유일하다.

페레스는 이날 2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33위(8언더파 272타)에 올라 페덱스컵 랭킹 70위에 턱걸이했다. 페레스는 이 대회 전에 페덱스컵 랭킹 71위였다.

페레스는 지난 5일 파리 올림픽 골프에서 4위로 아깝게 메달을 놓쳤지만, 올림픽 경기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와 이 대회에 출전한 보람을 만끽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공식적으로는 종료되지 않은 채 현지 시간 월요일로顺延됐다.

단 한명, 팻 쿨저(미국)가 18번 홀(파4) 티샷을 친 뒤 일몰로 경기를 다음 날로 미뤘기 때문이다. 대회조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대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시상식은 진행했다. /연합뉴스

## 축구대표팀 월드컵 예선 9월 5일 팔레스타인·10일 오만 상대

9월 예정된 한국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1, 2차전 일정이 확정됐다.

12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 대표팀은 9월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다.

오만과의 2차전은 한국시간 9월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홍명보호는 3차 예선에서 팔레스타인, 오만,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토)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년 8월

매주 월-일 17:00

광주공연마루